

생산성 향상 위한 면세유 활용방안에 관심을

□ 취재/김동진 기자

정부에서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난 1986년 3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면세유(유류, LPG)는 현재 정부를 대신해 농협이 전 업무를 일괄적으로 대행하면서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경제위기(IMF)로 인해 지난 한해 동안은 농업용 유류, 가스의 사용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면서 농업용 유류수요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밝히고 있어 농촌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어감을 느낄 수 있다.

농림부는 올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 한도량을 지난해 공급량 1,959,211kl보다 4.6% 늘어난 2,049,400kl를 배정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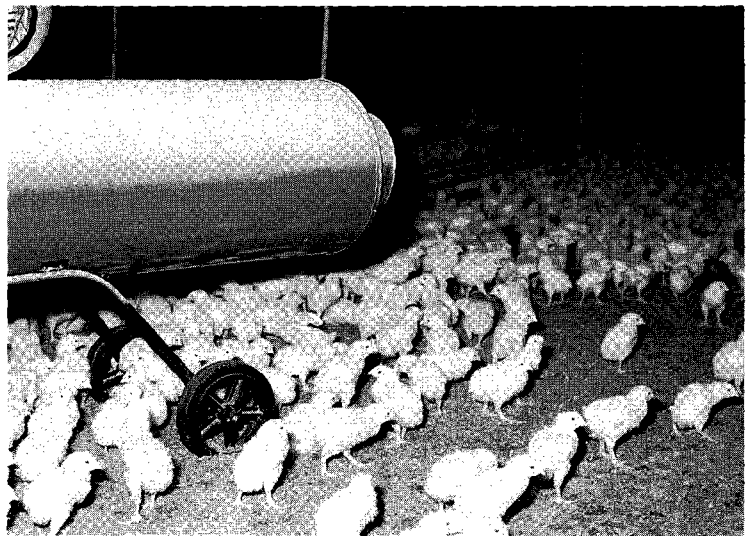
해 오고 있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으로 올해 1년간 경감되는 농가부담은 모두 4,780억원에 이르며 농가당 평균 34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면세혜택도 지난해는 1997년보다 1,300억원이 증가한 4,399억원으로 나타났다.

우리 양계농가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풍기에 대해 면세유 혜택이 돌아가 육계농장이나 산란, 종계의 육추실 등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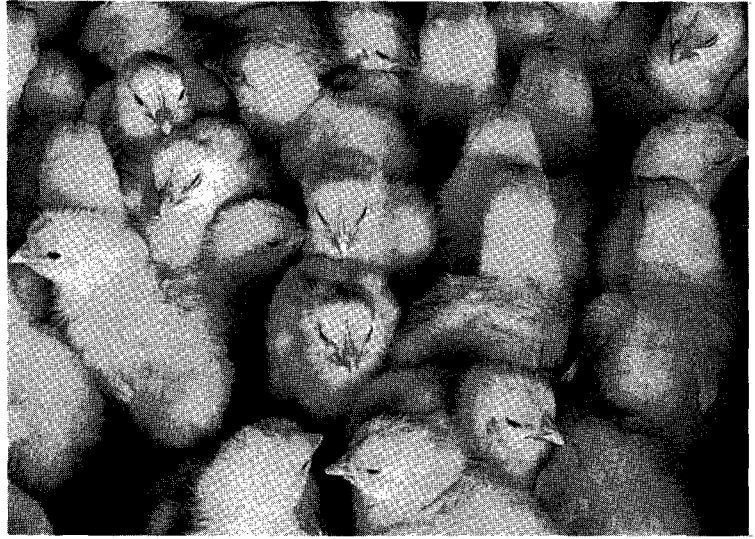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겨울 난방용으로 '보일러 등유'



△ 육계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풍기는 대부분 실내등유(백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세유' 사용으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다.

를 출시하여 싼 가격과 영하 15℃ 이하에서 점화, 연소가 잘되는 장점을 내세워 농가에 확대, 공급을 유도하고 있으나 경유보다 10%정도 열량이 부족하거나 기름이 많이 난다는 단점 등 농가들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열풍기나 등유를 사용하는 기계류는 기종에 맞는 유종을 원하는 대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계장에서



△ 농가(양계농가)에 공급되어지는 '면세유'가 자칫 불법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종종 드러나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이 높다.

표1. 면세유를 공급규모 및 면세액

(단위 : 천리, 억원)

구 분	1986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공급물량	266	649	1,246	1,385	1,837	2,489	1,959
공급금액	582	1,122	2,338	2,688	3,698	8,159	6,656
면세혜택액	123	247	983	1,165	1,652	3,141	4,399

자료 : 대한석유협회

면세유를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사항과 이에 따르는 절차,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농가에 공급되는 면세유의 종류 및 공급대상

석유는 산출되는 유전에 따라, 또 매장된 지층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독특한 냄새를 풍기며 물보다 가벼운 액체로서 비중은 0.65~

0.95이다.

석유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비등점에 따라 휘발유 등 여러 가지 추출물이 정제되는데 이 중에서 면세유에 해당하는 것은 휘발유, 살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중유(병커C유), 윤활유, LPG로 총 7종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은 동력경운기 등 38개 농업기계와 어촌에서 사용하는 선박·양식시설이 이에 해당되나 입업, 관

광레저업(골프장, 낚시업, 건설업 등)과 관련된 기계 또는 농기계의 경우는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양계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열풍기는 주로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간혹 경유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계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실내등유

1998년 8월 1일부터 신규 공급된 실내등유는 기존의 등유보다 실내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유황함량을 최저치 0.01

표2. 농협 유류취급소의 시장점유율

(단위) : 천배럴, %

구 분	우리나라 전체소비량				농협공급량				점유비 (B/A)
	휘발유	등유	경유	계(A)	휘발유	등유	경유	계(B)	
1986	8,577	7,985	57,137	73679	177	223	535	935	1.27
1990	23,693	26,845	99,181	149,719	216	626	1,460	2,302	1.54
1993	42,508	43,259	138,021	223,788	282	987	2,282	3,551	1.59
1996	67,971	73,662	172,406	314,039	343	1,025	3,695	5,063	1.61
1997	71,358	85,025	166,790	323,173	426	1,268	4,043	5,737	1.77

자료 : 유류·가스업무(농협)

%로 낮은 고급의 백등유로서, 무색이고 실내에서 냄새, 그음이 매우 적으며, 인화성이 높고 안전성이 좋아 직화식 곡물 건조기용 및 실내난방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양계장에서 사용하는 열풍기의 경우 대부분 실내등유(일명 백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보일러등유

등유분과 경유분을 5:5로 혼합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신규공급된 유종으로 영하 15도 이하에서도 연소가 가능하여 경유보다 발화와 연소능력이 높은 유종이나, 열효율(열량)이 경유보다 10%이강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주로 시설하우스 농업용 난방기 및 가정용 실외 난방기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래 보일러등유는 타용도 사용방지를 위해 착색제 또는 식별제를 첨가하

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공급하고 있다.

다) 경유

비등점의 범위가 섭씨 240~350℃ 정도로 디젤유라고도 하며, 사용용도로는 대부분의 농기계 내연기관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 난방기 및 가정용 실외난방기용 연료로 사용되며 보일러등유보다 가격면에서 저렴해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다.

2. 농협 대행체제로 이루어지는 면세유 공급

농협이 맨 처음 유류를 취급하게 된 것은 1968년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이후 1979년까지 생활물자사업의 일환으로 등유,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농촌지역의 농기계 확대 보급과 에너지 수요구조

의 변화로 농촌지역의 유류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유류취급소가 확대되었고 1986년부터 면세유류가 공급되면서 농가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시설원에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에서 면세가스도 가스충전소 및 가스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12월 말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류취급소는 주유소 228개소, 판매소 722개소로서 총 95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유류취급소는 약 80%가 일반판매소로 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며 1997년도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국내 총소비량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라 관계자들은 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영다각화를 이루어야 만이 전문적인 유류 공급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표3. 1999년 8월 12일 현재 면세유 가격 현황 (단위 : 원/1)

구분	면세가	일반업소(일반주유소)
휘발유	336	1,192
실내등유	365	499
보일러등유	319	448
경유	298	531
중유-벙커C유(0.5)	241	219
LPG	517	613

표4. 농업용 온풍난방기 유종별 연료소모량

규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l/시간)		규격 (kcal/h)	유종별 연료소모량 (l/시간)	
	등·경유	중유		등·경유	중유
16,000	2.7		100,000	16.5	14.5
20,000	3.4		125,000	21.0	18.0
25,000	4.2		160,000	27.0	23.5
31,500	5.3		200,000	33.0	29.0
40,000	6.7		250,000	42.0	37.0
50,000	8.3	7.3	315,000	53.5	45.0
63,000	10.5	9.2	400,000	66.5	58.0
80,000	13.4	11.8	500,000	83.0	73.0

자료 : 석유 가스업무(농협)

* 등·경유는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를 말함

농협 주유소의 취약점은 대부분 수송여건이 불리한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저장용량이 작아 빈번한 수송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류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계약시 민간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는 유류공급업소에서 처음부터 영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영세율제도가 아니고, 과세가격으

로 구입한 유류를 면세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한 후 국제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세액을 정산하는 사후 면세절차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3. 면세유 공급절차

농가에서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에 들러 보유한 농업기계(보일러, 경운기 등)를 신고하면 담당 농협 직원은 그 기종에 맞는 유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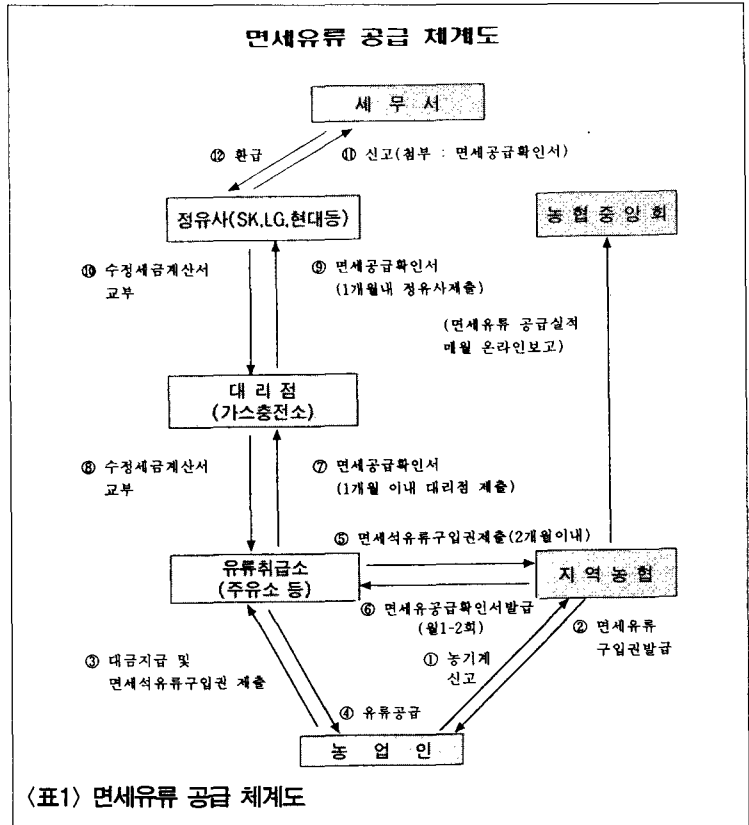
기초로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에 '연간 기계사용 시간'을 곱하여 유류사용량을 산정하여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해 준다. 이 구입권을 가진 농가는 가까운 농협유류취급소, 일반주유소, 가스충전소, 가스판매소에 제출하고 유류대금을 납부한 후 필요한 양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이다. 유류량을 산정할 때 육계농가에서 사용하는 열풍기의 경우 시간당 발열량(Kcal/H)이나 버너의 시간당 유류 소비량(l/H)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참고로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엔진의 마력수', 분무기나 예초기는 '엔진의 배기량', 곡물건조기는 '석', 농산물 건조기는 '평' 등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킨다. 단 기계를 보유하고 하더라도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유 공급은 농가들의 성실한 신고 및 농협의 철저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 구입권의 발급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된 기대별 기본공급한도량을 분기별로 나누어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의 경우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이앙기, 콤바인 등은 조합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한꺼번에 발급해 줄 수 있으며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입권 추가발급의뢰서'를 받고 다음분기 해당분을 앞당겨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입권은 그해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연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가에서의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특히 열풍기 사용이 많은 육계농가의 경우 겨울철에 면세유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에서는 일반 주유소나 유통취급소에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 면세유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정유사(SK, LG 등)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환급을 받게 된다.

4. 면세유 사용의 허점

면세유 사용 실태를 보면 본 목적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쓰여지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지난 5월까지 시, 도와 농협 합동으로 604개 농가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5%인 21개 농가에서 난방보일러나 승용차, 오토바이 연료 등으로 부당사용



〈표1〉 면세유류 공급 체계도

하고 12개 농협은 기준량을 초과해 공급하는 등 부실 관리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면세유공급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구입권 발급시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법을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일기종은 1대를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2대 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농업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구입자와 사용자

가 다른데도 각각 신고하는 경우, 폐기상태의 고장난 기종을 신고하는 경우, 농업 이외에 건설업, 상업, 공업, 임업, 관광업 등에 이용되는 농기계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가 적발한 몇가지 사례를 보면 이양기에 넣어 야할 면세휘발유를 보일러용 경유로 교환했는가 하면 이웃주민들에게 남는 양을 나누어주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당사례가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부정사용량에 대하여 과세처리하고 다음 연도 1년간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게 되므로 농가경영에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4. 결론

내년도에는 산유국들이 올해처럼 지속적인 유량감소계획을 세우고 있어 물량감소로 유류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도 면세유 공급 한도액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내년도 배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배정 받은 물량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 써버려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세유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결국 농협이나 정유회사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즉 많이 쓰면 쓸수록 국민경제에 이로우려 없다. 양계장 등 농민들은 면세유를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나친 낭비는 지양하는 쪽으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보일러 등유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오래된 사

용관행과 그을음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열풍기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부적합한 기종(비교적 오래된 기종)외에는 공기주입구, 노즐 개폐조정으로 그을음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유리해 농가에서 관심만 가질 경우 1당 50원에서 100원을 절약해가면서 충분히 농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법을 지키면서 농장을 꾸려나가려는 농심(農心)과 이를 운영해 가는 정부, 농협이 합심할 경우 '면세유 공급'의 진정한 목적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

양계유통전문

- 병아리 (산란계, 육용계)
- 중 추 (산란계, 중추농장 직영판매)
- 노 계 (산란계, 육용종계)



대림유통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1179번지
전화 : (0417) 574-4600/1

대표 : 변 광 일

농장 : (0417)582-3827
팩스 : (0417)572-5949